

베트남, 원유 생산량 20% 급증

PetroVietnam, 2009년 1600만톤 예상 ... 신규 유전 9곳 가동

베트남의 2009년 원유 생산량이 1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.

일간 탕니엔은 11월25일 베트남 국영 석유기업 PetriVietnam의 소식통을 인용해 2009년 1-10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9% 늘어난 1400만톤으로 집계돼 2009년 전체 생산량은 1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.

2009년 해외유전 3곳을 포함해 총 9곳의 유전이 새로 발견돼 신규 가동했기 때문이다.

1-10월 원유 수출은 12% 증가한 1300만톤으로 2009년 전체 수출량이 선적 기준으로 최대 160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2009년 2월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최초의 Dung Quat 정유공장에 공급한 원유는 120만톤으로 파악됐다.

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11% 감소했다.

2010년 생산량은 100만톤이 줄어든 1500만톤으로 1441만톤을 베트남에서 생산할 전망으로 생산량의 943만톤은 수출하고 500만톤은 Dung Quat 정유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.

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상위 5위권에 드는 원유 생산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25>